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임 수 진[†]

안 진 홍

전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애착과 정서조절의 효과를 알아보려 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광주지역 초등학생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515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어머니 애착 영향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학교적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년이나 주 양육자에 따른 학교적응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어머니 애착은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학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의 하위요인들 중 신뢰감이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습적응, 학내생활의 학교적응 하위요인 모두에 의미 있는 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정서조절은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개를 하였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정서조절을 잘 하였고, 증가된 정서조절은 학교적응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어머니 애착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었고, 정서조절을 매개하여서도 간접적으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준 것이다.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필요하며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주요어 : 어머니 애착, 학교적응, 정서조절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임수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시간강사,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Tel : 062-530-2650, E-mail : sjlim429@hanmail.net

학생들의 신체적 폭력, 갈취, 따돌림, 성폭력, 자살 등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함께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2.3%인 17만명이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으며 24.5%가 ‘학교내 일진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사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학교 적응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여 청소년기나 어른이 되어서도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박명숙, 2001).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각기 다르다. 먼저 민영순은(1994)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 등에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학교적응이라고 보았다. Ladd, Kochenderfer, 와 Coleman (1996)은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여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학교적응으로 보았다. 차유림(2000)은 학교라는 환경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와 자신을 변화시켜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과정으로서 학교 적응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학교적응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권영복(2002)의 개념을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학습에 적응, 친구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학교생활

에 대한 적응으로 보았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었다. 개인적인 변인과 부모관련 변인, 사회적 변인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학교 적응에 자아존중감(박은영, 2011; 이정운, 이경아, 2004; 정미영, 문혁준, 2007), 자기 효능감(이하늘, 이숙, 2012), 자아탄력성(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조은정, 2012; 한신애, 문수백, 2011), 정서지능(이인학, 최성열, 2009)과 같은 개인적 변인이 영향을 주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조은정, 2012; 하명선, 이순복, 2009; Amato, & Fowler, 2002)와 부모와의 애착(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허재경, 김유숙, 2005), 부모의 지지(Pettit, Bates, & Dodge, 1997)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정운, 이경아, 2004)과 같은 부모관련 변인이 학교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지지적일수록 잘 적응하였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는 또래의 거부(Buhs & Ladd, 2001), 또래의 지지(허재경, 김유숙, 2005; Ladd & Golter, 1988) 등 친구변인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허재경, 김유숙, 2005)가 학교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회적 변인인 교사나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았다. 실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한 가지라기 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중요

하게 보았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차유람, 2000),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허재경, 김유숙, 2005), 또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양육방식을 가지고 있을수록(이정운, 이경아, 2004)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애착과 학교적응을 정서조절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부모-아동의 애착의 질은 친구를 포함한 가족외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Bowlby, 1973) 자신과 가장 가까운 양육자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는 생존에 중요한 안전기지 역할을 하며 이후의 발달과 다양한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Williams, & Kelly, 2005).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정감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경험하고자 한다.

특히, 어머니-아동 정서적 관계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진로결정, 교육적 선택, 친구관련 스트레스, 우정이나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형성에 영향을 준다. 즉, 민감한 시기의 발달과 적응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애착이론이다(Mattanah, Lopez & Govern, 2011).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Bowlby, 1973)에 의해 자신과 타인을 믿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한다. 이러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가족 뿐아니라 친구와 교사의 관계로까지 확대하여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정세화, 2003; 허재경, 김유숙, 2005).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 일수록 학

업과 친구관계 등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분, 최연실, 2012; 김정필, 2004;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이은경, 1992; 지수경, 2001.).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타인들의 거부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여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더 쉽게 지각하고 불안과 분노를 더 느끼고 과잉 반응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이러한 불안정한 관계는 학교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아동의 애착이 어떠한 과정과 기제를 거쳐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정서조절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하고 즉각적인 형태로 정서적 반응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조절은 정서적 각성과 주의통제과정에 기초하는 내적과정과 부모의 사회적인 행동과 정서적 반응과 조절에 영향을 받는 외적과정이 있다(Contreras, Kerns, Weimer, Gentzler, & Tomich, 2000). 아동의 정서조절은 부모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서조절은 애착체계 기능 중에 하나이다.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이들은 그들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부모를 이용한다(Bowlby, 1973).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도록 하는 부모의 특성과 행동은 아이들의 적응적인 정서조절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민감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하는 부모들은 사건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효과적인 정서조절 모델을 제공한다

(Cassidy, 1994).

자신의 엄마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또래들과의 놀이시간에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덜 보인다(Sroufe, Schork, Motti, Lawroski, & LaFreniere, 1984) 또한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경쟁적인 과제 실패 이후에 슬픔등의 구체적인 정서를 더 자주 표현하였다(Sroufe 등, 1984)

또한 깜짝 놀랄 만한 공포 유발 실험에서 안정된 애착의 아동들은 초기에는 불안반응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반응을 보였다(Borelli, Crowley, David, Sbarra, Anderson, & Mayes, 2010). 결국 안정된 애착의 아동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서조절은 애착관계에 기초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Fonagy, Gereley. Juris, & Target, 2002).

정서조절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이 자신과 다른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고 조화를 잘 유지하여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 교사들의 평가도 좋았다. 하지만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아이들은 또래관계에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또래와 교사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박서정, 2004).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정서지능이 높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수업,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이인학, 박지은, 김도진, 최성열, 20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은영,

2004; 이정윤, 이경아, 2004; 이하늘, 이숙, 2012),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일반가정에 비해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을 비교하는데 고경은(2002)과 박미노(2007)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소은(2009)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은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아동의 정서조절은 애착이나 학교적응과 각각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동의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이 매개하는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정서조절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을 매개 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개 학교 20개 반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비밀보장과 통계적 사용을 설명하였다. 수거된 528개의 설문 중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515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년으로는 5학년이 262(50.8%)명, 6학년이 253(49.2%)명이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260 (50.4%)명 여학생이 255(49.5%)명으로

학년과 성별은 비슷한 수를 보였다. 주 양육자는 대부분이 어머니가 많았다. 어머니라고 응답한 학생은 473(91.8%)명이었고 아버지는 25(4.8%)명, 조부모는 12(2.3%)명, 친척과 시설 거주 등 기타는 5(0.9%)명 이었다.

측정도구

어머니 애착 척도

어머니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R(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또래에 대한 상호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25문항이며 신뢰차원이 10문항, 의사소통 차원이 9문항, 소외차원이 6문항이다.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Likert척도이며 총점은 25에서 125점 사이이다. 소외는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소외를 느끼지 않는 것이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03 이다.

정서조절척도

정서조절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Mayer Salovey(1996)의 정서지능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6)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조절척도는 자신의 정서조절과 타인의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서조절은 8문항이며 타인의 정서조절능력은 7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Likert척도이며 총점은 15에서 75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50이다.

학교적응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권영복(2002)이 제작한 것을 김진호(2002)가 수정 보완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습에의 적응, 학내생활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이 각 7문항씩으로 총 28문항이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까지 5점 Likert척도 문항이다.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점까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48이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학교에 있는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뒤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학교 적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다변량 분석을 위해 변인들 간의 관계인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변량의 정규분포는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검토를 통해 평가하였고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시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검증(Box's M)과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성 검증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다. 변량의 선형성(linearity)을 알아 볼 수 있는 다중공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점검을 통해 파악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애착의 각 하위요인들이 학교적응의 하위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의 하위변인별 회귀분석을 추가하였다.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를 따랐다. 먼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지, 두 번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세 번째 매개변인은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PSS 19.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초분석 및 상관분석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별, 학년, 주 양육자에 따라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학생의 학교적응 평균은 110.519였고, 여학생의 학교적응 평균은 117.419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1,512)}=19.404, p<.001$).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 평균은 5학년이 114.824, 6학년이 113.015로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 양육자의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엄마인 경우는 114.474, 아빠인 경우는 110.120, 조부모인 경우는 100.583, 기타인 경우는 114.200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변수들의 상관을 살펴보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N	M	SD	F	P
성별	남	260	110.519	19.149	19.404***	.000
	여	255	117.419	16.251		
학년	5학년	262	114.824	18.645	1.287	.257
	6학년	253	113.015	17.483		
주 양육자	엄마	473	114.474	18.123	2.717	.051
	아빠	25	110.120	15.987		
	조부모	12	100.583	17.317		
	기타	5	114.200	16.453		

*** $p<.001$, ** $p<.01$, * $p<.050$

표 2. 각 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의사소통 -부모애착	신뢰감 -부모애착	소외감 -부모애착	자기 정서조절	타인 정서조절	친구 -학교적응	교사 -학교적응	학습 -학교적응	학내 -학교적응
의사소통	-								
신뢰감	.821**	-							
소외감	.511**	.572**	-						
자기정서조절	.474**	.465**	.295**	-					
타인정서조절	.359**	.336**	.136**	.606**	-				
친구	.359**	.396**	.290**	.508**	.520**	-			
교사	.370**	.401**	.276**	.535**	.602**	.574**	-		
학습	.357**	.427**	.322**	.496**	.529**	.466**	.743**	-	
학내	.407**	.485**	.318**	.572**	.549**	.670**	.764**	.730**	-
평균	40.497	37.718	23.120	19.447	16.396	29.383	28.826	27.204	28.524
(표준편차)	(7.183)	(5.515)	(3.544)	(3.119)	(2.914)	(4.983)	(4.887)	(5.509)	(5.568)

*** p<.001, ** p<.01, * p<.050

면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정적상관($r=.821$, $p<.01$)을 보였고, 의사소통과 소외감(역코딩) 역시 정적 상관($r=.511$, $p<.01$)을 보였다. 그리고 신뢰감과 소외감 역시 정적상관($r=.572$, $p<.01$)을 보였다.

자기 정서조절과 타인 정서조절은 정적상관($r=.606$, $p<.01$)을 보였다.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은 부모애착의 하위요인들과도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먼저 의사소통은 자기 정서조절과 정적상관($r=.474$, $p<.01$)을 보였고 타인 정서조절과도 정적상관($r=.359$, $p<.01$)을 보였다. 신뢰감도 자기 정서조절($r=.465$, $p<.01$)과 타인 정서조절($r=.336$, $p<.01$) 모두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소외감도 자기 정서조절($r=.295$, $p<.01$)과 타인 정서조절($r=.136$, $p<.01$) 모두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도 역시 부모애착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친구

관계와 부모애착의 의사소통($r=.359$, $p<.01$), 신뢰감($r=.396$, $p<.01$), 소외감($r=.290$, $p<.01$)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교사관계와 부모애착의 의사소통($r=.370$, $p<.01$), 신뢰감($r=.401$, $p<.01$), 소외감($r=.276$, $p<.01$)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학업적응도 부모애착의 의사소통($r=.357$, $p<.01$), 신뢰감($r=.427$, $p<.01$), 소외감($r=.322$, $p<.01$)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역시 부모애착의 의사소통($r=.407$, $p<.01$), 신뢰감($r=.485$, $p<.01$), 소외감($r=.318$, $p<.01$)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정서조절의 하위요인과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도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기 정서조절은 친구관계($r=.508$, $p<.01$), 교사관계($r=.535$, $p<.01$), 학업적응($r=.496$, $p<.01$), 학내적응($r=.572$, $p<.01$)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타인 정서조절 역시 친구관계($r=.520$, $p<.01$), 교사관계($r=.602$, $p<.01$), 학업적응($r=.529$, $p<.01$),

.01), 학내적응($r=.549$, $p<.01$)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

다변량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통계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 분포의 가정을 따랐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한 Box의 동일성 검증(Box's M)과 Levene의 검정도 공분산과 오차분산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독립성 검증은 Durbin-Watson의 d 를 사용하였는데 완전 정적상관일 경우는 d 값이 0이고 완전 부적상관일 경우에는

d 값이 4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량이 모두 2에 가깝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점검을 통해 파악하였는데 역시 10을 넘지 않아 변량의 선형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켰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아동의 어머니 애착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해보았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친구관계에 의사소통과 소외감은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신뢰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할수록 친구관계는 긍정적이었다($\beta=.269$, $p<.001$).

표 3. 학교 적응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애착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B	SE B	β	t	R^2	F
친구관계	의사소통	.064	.049	.092	1.298	.165	33.767***
	신뢰	.243	.067	.269	3.611***		
	소외	.125	.070	.089	1.803		
교사관계	의사소통	.080	.048	.118	1.661	.168	34.482***
	신뢰	.237	.066	.268	3.602***		
	소외	.087	.068	.063	1.275		
학습적응	의사소통	.002	.054	.003	.041	.192	40.362***
	신뢰	.359	.073	.360	4.905***		
	소외	.178	.076	.114	2.350*		
학내생활	의사소통	.015	.053	.019	.279	.237	53.044***
	신뢰	.439	.072	.435	6.107***		
	소외	.094	.074	.060	1.263		
전체	의사소통	.161	.169	.064	.952	.255	58.156***
	신뢰	1.279	.231	.390	5.537***		
	소외	.484	.239	.095	2.028*		

* $p<.05$ ** $p<.01$, *** $p<.001$

교사관계도 역시 의사소통과 소외감은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신뢰감이 증가할수록 교사와의 관계도 역시 긍정적이었다($\beta = .268, p < .001$).

학습적응과 학내생활에서도 신뢰감은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신뢰감이 증가할수록 학습적응($\beta = .360, p < .001$)과 학내생활($\beta = .435, p < .001$)은 더 적응적인 모습을 보였다. 학습적응에서는 소외감도 역시 영향을 주었다. 소외감이 작을수록 학습적응은 증가하였다($\beta = .114, p < .001$).

학교적응 전체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소외감 역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신뢰감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은 증가하였고($\beta = .390, p < .001$), 소외감은 감소할수록 학교적응은 증가하였다($\beta = .095, p < .05$).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eta = .491, p < .001$), 두 번째 어머니 애착이 정서조절에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beta = .464, p < .001$).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 애착과 정서조절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 애착과

정서조절 모두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 애착이 증가할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였으며($\beta = .215, p < .001$) 정서조절이 증가할수록 역시 학교적응도 증가하였다($\beta = .596, p < .001$). 어머니 애착의 설명이 1단계에서($\beta = .491, p < .001$)보다 3단계($\beta = .215, p < .001$)에서는 줄어들었다. 이것은 정서조절의 설명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이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학교적응을 24% 설명하였지만 3단계에서는 52%로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다시 한번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5.068의 Z 값($p < .001$)이 산출되어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 효과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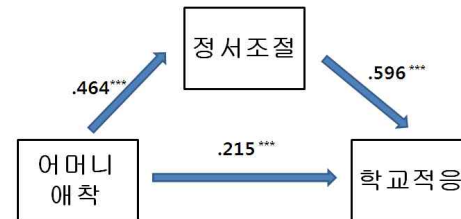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표 4.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정서조절	B	SE B	β	t	R^2	F
1단계	어머니 애착→학교적응	.616	.048	.491	12.782***	.240	163.373***
2단계	어머니 애착→정서조절	.174	.015	.464	11.873***	.216	140.971***
3단계	어머니 애착→학교적응	.269	.043	.215	6.214***	.520	277.446***
	정서조절→학교적응	1.993	.116	.596	17.239***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기초 통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학교에 더 잘 적응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박은영, 2004; 이정운, 이경아, 2004; 이하늘, 이숙, 2012)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관계에 관심이 많고 주어진 상황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의 특성이 여학생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년이나 주 양육자에 따른 학교 적응에 차이는 없었다.

주 양육자에 따른 차이는 가족의 구조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정이 학교적응이 더 낮다는 연구(고경은, 2002; 박미노, 2007)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가 아닌 주 양육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가족의 구조에서도 학교적응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전소은, 2009)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주된 관심 이었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허재경, 김유숙, 2005. 이은경, 1992; 지수경, 2001, 심정필, 2004; 김분, 최연실, 2012).

애착의 하위요인 중에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특히 신뢰감이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감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습적응, 학내생활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감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가 안전기지의 역할을 한다(Bowlby, 1973). 안전기지는 가족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거부적이지 않아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모와의 신뢰로운 관계가 친구들이나 교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정서조절에도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들(Bowlby, 1973; Cassidy, 1994; Contreras 등, 200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Fonagy등(2002)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정, 지지, 즉 정확한 반영(mirroring)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애착관계를 기초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Cassidy(1994) 역시 아이들에게 민감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고 반응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정서조절의 좋은 모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정서조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부모들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태도에 의해 아동들이 자신의 정서조절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Borelli Crowley, David, Sbarra, Anderson, & Mayes, 2010). 즉,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정서조절을 사회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을 효과적으로 매개하였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조절은 친구들과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도 긍정

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여진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친구들의 거절이나 거부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과잉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더 쉽게 거부당했다고 지각하고 불안과 분노를 경험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이 감소하였다(이경숙 등, 2000). 결국에는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정서조절을 하지 못해 또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다. 박서정(2004)의 연구에서도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애착과 정서조절은 또래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 학습적응, 학내생활에 까지 영향을 준다. Jacobsen, Edelstein, Hofmann, (1994)에서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보다 인지적 과제를 더 잘 수행하였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즉, 안전기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세계를 탐색하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인지적 과정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정서적 안정감은 불안정한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고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린시절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자신의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수용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모델학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습된 정서조절능력은 친구들과 교사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이끌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 또한 정서적인 안정감은 대인관계 뿐 아니라 학습에도 몰입하도록 도와주고 학교규칙을 수용하도록 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이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의 안정되고 신뢰로운 관계형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학교적응 향상에는 부모뿐 아니라 교사나 친구들과의 안정된 애착도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친구들과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지나치게 교과 위주인 우리나라의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서두에 언급하였던 학교 폭력과 같은 학교 부적응의 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기-보고 질문지가 갖는 한계점으로 학교 적응 척도를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자기-보고의 한계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는 특정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적응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제 학생들의 주관적 보고와 더불어 교사, 또래의 평가 뿐 아니라 학급참여율이나 학습률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적응과 관련해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다. 또래관계 이외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과 같은 가족구조나 아동의 심리적인 특

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적응도 좀 더 세분화하여 교사와의 관계, 학업수행, 학교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경은 (2002).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교육과학부 (2012). 학교폭력 실태조사. <http://www.mest.go.kr/web/60876/ko/board/list.do?bbsId=291>.
- 권영복 (2001). 교사의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김진호 (2002). 초등학교의 컴퓨터 게임 및 대화방 활용 실태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문용린 (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민영순 (1994).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박명주 (2001).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박미노 (2007). 조손가정 손자녀들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손자녀들이 인지하는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서정 (200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박은영 (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8(6), 1-27.
- 심정필 (2004). 초등학교의 애착 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3), 165-180.
- 옥정 (1998).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1(1), 51-59.
- 이은경 (1992). 청소년기 모-자녀간의 애착이 자녀의 사회성과 학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학, 박지은, 김도진, 최성열 (2011). 초등학교의 정서지능,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아동교육* 20(3), 21-31.
- 이인학, 최성열 (2009). 초등학교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아동교육*, 18(4), 47-56.
- 이정운, 이경아 (2004). 초등학교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6(2), 261-276.
- 이하늘, 이숙 (201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경로분석.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2), 65-74.

-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전소은 (2009).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세화 (2003). 애착안정성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학교적응.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조은정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1), 35-50.
- 지수경 (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유림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연실, 김 분 (2012). 초등학생의 부모·교사·또래 애착 유형별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1), 1-13.
- 최진아, 박은민 (2011). 아동의 애착,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9(10), 103-113.
- 하명선, 이순복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47-258.
- 한신애,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18(3), 355-376.
- 허재경, 김유숙 (2005). 부모애착 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83-495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4-5), 709-716
- Amato R. R., & Fowl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703-716.
- Baron, B.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23-33.
- Borelli, J. L., Crowley, M. J., David, D. H., Sbarra, D. A., Anderson, G. M., Mayes L. C. (2010). Attachment and Emotion in School-Aged Children. *Emotion*, 10(4), 475-485.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Anxiety &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uhs E. S. & Ladd, G. W. (2001) Peer rejection as an antecedent of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 examination of mediating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550-560.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 Cohn DA, Patterson CJ, Christopoulos PA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 Social Personal Relat* 8: 315-346.
- Contreras, J. M., Kerns, K. A., Weimer, B. L., Gentzler, A. L., Tomich, P. L. (2000).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Associations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14(1), 111-124.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87.
- Goldberg S (1991): Recent Developme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an J Psychiatry* 36: 393-400.
- Gresham FM, Little SG (1993): Peer-referenced assessment strategies. In T. H. Ollendick, M. Hersen (Eds.),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assessment*. Boston: Allyn and Bacon, pp.165-179.
- Jacobsen, T., Edelstein, W., Hofmann, V. (199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in Childhood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112-124.
- Ladd G. W. & Golter, B. S. (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s: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09-117.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Mattanah, J. F., Lopez F G., Govern J. M. (2011). The contribution of parental attachment bonds to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4), 565-596.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Sroufe, A., Schork, E., Motti, F., Lawroski, N., & LaFreniere, P. (1984).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mpetence. In C.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289-31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iams, S. K., & Kelly, F. D. (2005). Relationships among involvement, attachment,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ce: examining father's influ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2), 168-196.
- 원 고 접 수 일 : 2012. 06. 13.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8. 04.
최종게재결정일 : 2012. 08. 08.

Effects of Mother-child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Lim Sujin

Ahn Jinh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other attachment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 It was established the study modeling which shows the direct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mediate emotion regulation variables which can mediate moth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The questionnaire has carried out for 528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findings were follow: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to gender, but there are n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to grade and major fosterer. Mother attachment has significant influenced on the school adjustment. Specifically trust of attachment subvariables provided significant explanation for relation of friend, relation of teacher, adjustment of study and school life. Mother attachment has influenced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 in the indirect way. Looking on the side of indirect effect, mother attach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 The more they had secure attachment with mother, the more they were good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Moth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Emotional Regulation